



배고픔은 없고, 명성뿐: L'ORÉAL의 점 심

L'ORÉAL THROUGH GILLETTE · 07

오전 내내 일하며 지나갔는데,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Giorgio의 침묵이었다. 그는 이런 내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기가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구매 담당자 Rita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와 거의 동시에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녀는 헬멧을 벗고 긴 머리를 풀어 내렸다. 마치 “방금 미용실에서 왔어요, 마음에 드는지 볼까요?”라고 말하듯이.

Giorgio가 웃기 시작하더니 말했다. 젠장, 너 때문에 꾸미고 올 줄 알았다니까, 이 운 좋은 자식.

무슨 소리야, 너 정신 나갔어, 나는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말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구석 자리를 골랐다. 조용한 자리였지만 둥근 테이블이 아니라 일부러 고른 직사각형 테이블이었다. 그리고 내게 자기 옆에 앉아 달라고 했다.

격식은 그만 차려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좋아요, 하지만 카타니아 시청에 기록된 당신의 진짜 나이는 묻지 않을게요. 그건 저쪽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몫이니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가 연극배우냐고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무대는 거리에요.

직업이 뭐예요? 마법사죠, 당연히. 무슨 그런 질문을! 하하하하하하.

좋아요, 내가 진짜로 하는 일을 말해 줄게요. 나는 남자들에게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야 당신 같은

지적인 여자들을 찾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녀들이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시작이 좋네요. 그럼 그 직업은 뭐라고 부르나요?

나는 사제복 없는 신부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있죠.

Giorgio가 대화를 넘겨받아 본사와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나는 장난을 멈추었다.

그날 아무도 사업이나 판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남자는 그를 만든 어머니만큼만 훌륭하다.

Ferdinando